



Market Index / 17일

코스피지수 ▲ 8864.24 +137.64	코스닥지수 ▲ 1031.96 +13.28	유가(WTI, 달러) ▼ 75.27 -4.17	환율(원)	1USD 1538.25 100¥ 959.81	살때 1485.35 팔때 926.81	1EUR 1790.12 1CNY 234.93	살때 1720.28 팔때 212.57
----------------------------	---------------------------	------------------------------	-------	-----------------------------	-------------------------	-----------------------------	-------------------------

JDC 면세점 이용객·매출 동반 감소 '비상'

중동 전쟁 이후 이용객 4월 7.6%, 5월 14.2% 감소 월별 매출도 작년보다 4월 9억원, 5월 20억원 줄어

중동전쟁 사태로 제주노선의 항공편 좌석난이 심화되면서 내국인 면세점 이용률이 떨어지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JDC에 따르면 중동전쟁 발발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라 제주노선의 항공 좌석이 줄고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할증료로 인해 항공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주공항 출도객과 내국인 면세점의 매출·이용객이 동반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해 1월 120만명을 넘어섰던 출

도객은 지난 3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많았지만 5월에는 118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이용객도 4월부터 7.6%, 5월에는 14.2%나 감소했고 출도객 대비 이용률도 4월 22.6%에서 5월에는 20.3%로 추락했다.

월별 매출도 4월 3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원 가량 줄었고, 5월에는 감소 폭이 커져 20억원이 줄어든 330억원에 머물렀다.

그나마 면세점 전체 순매출은 올해 3월까지 선전하면서 평균 객단

가가 12만6881원으로 올라 1600여원을 기록, 4.4%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전체 매출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객단가가 상승한 이유가 고환율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7월부터는 중동전쟁 사태가 해결되고 유류할증료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좌석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JDC가 4년 연속 감소하던 면세점의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365억원 늘어난 4300억원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지금처럼의 이용객 감소는 올해 경영평가에서도 하위등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JDC는 이에 따라 하반기 면세점 매출 향상 전략을 긴급하게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할인쿠폰 증정 등 이벤트를 실시하고 신규 회원에게는 할인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MZ 선호 브랜드 신규 입점 등을 통해 젊은 고객 체류를 확대하고 주류와 화장품 등 품목별 단독·한정 상품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행 품목제한을 총포·마약류를 제외한 품목을 폐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용횟수도 연 1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박사 yswi1968@ihalla.com



오름·초원 달리며 제주 만끽... 트레일런 성황 가시리 일대 트레일런에 도민·관광객 2000여 명 참가 참가자 70% 관광객... 체류형 스포츠관광 가능성 확인

제주 오름과 초원을 달리는 트레일런 행사에 제주 도민과 관광객 2000여명이 몰렸다. 특히 참가자의 70% 정도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러닝 열풍을 타고 스포츠와 여행을 결합한 체류형 콘텐츠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살로몬과 함께 지난 13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원에서 '2026 제주 오름 트레일런'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 제주 포시즌 방문의 해' 여름 시즌 대표 프로그램으로 이달 4-30일 제주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제주러닝워크의 핵심 행사다. 제주의 오름과 목장길, 초원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트레일

러닝 코스로 전국 러너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건
대회는 30km와 10km 코스로 나눠 열렸다. 참가자들은 가시리 마을과 따라비오름, 큰사슴이오름 일대를 달리며 제주의 자연경관을 체험했다.

경기도 부천에서 가족과 함께 제주를 찾은 윤창배(42)씨는 "대회 참가를 위해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으며, 러닝뿐 아니라 오름, 바다, 맛집 등을 찾아 제주를 즐겼다"고 했다.

올해 제주러닝워크는 우도런, 마라도런, 아트런(맹명런, 돌하르방런, 당근런), 온라인 스탬프런 등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형태로 선보였다. 온라인 스탬프런은 이달 30일까지 운영되고 있다. **윤미숙기자**

정부, 배추·무 3만4000t 확보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회의

정부가 봄·여름 배추와 무 3만4000톤(t)을 확보해 우천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할 경우 시장에 신속히 공급하고, 계란은 신선란 3000만개 이상을 수입해 공급하기로 했다.

닭고기는 부화율 종란 1700만개를 순차적으로 수입해 여름철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하고 착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급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해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은 선제적인 비축을 통해 공급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할인지원도 확대해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양돈·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영양제 공급도 추진한다. **연남뉴스**



계란 가격 오름세 지속 계란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17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계란의 품질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계란(특란 30구) 소매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7441원으로, 1년 전(7033원)보다 5.8% 올랐다. **연남뉴스**

여름철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제주시, 7월 3일까지 참다래·16일까지 콩 접수

제주시가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된 정부 정책으로

제주에선 2002년 감귤 품목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62개 품목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운영 중이다.

현재 가입이 진행 중인 주요 품목은 참다래와 콩이다. 가입 대상은 참다래 300㎡ 이상, 콩 500㎡ 이

상을 재배하는 농가다. 가입 기한은 참다래 7월 3일까지, 콩은 7월 16일까지다. 당근, 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 품목은 7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별 가입 기간을 확인한 뒤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백금탁기자**

한은 "하반기 물가상승률 3% 내외"

내년에도 2% 상회 전망

중동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하락해도 소비 개선, 임금 상승 등으로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17일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앞으로 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물가 여건과 관련,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됐으나 물가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다. 특히 국제 유가

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면서 낮아지겠지만, 인프라 복구, 각종 재비축 수요 등으로 하락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정부 정책이 유가 충격의 물가 영향을 상당 수준 완충하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IT 업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임금 인상 움직임이 향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물가 압력이 추가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남뉴스**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msuk Salm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품,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콤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제주시 조천읍 복선로100-29 / 조천읍 선흥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